

수업 시간에 함께 읽는 그림책

이 그림책은 교과서 수록작이며,
교과서에 실린 부분 외에
작품 전체를 함께 읽기를 권장합니다.

자료제작자:
초등교사 이시내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

활동 순서

1

그림책
살펴보기

2

그림책
자세히
읽기

3

내 이야기로
만들기
(내면화)

그림책 살펴보기

우리가 함께
읽을 그림책입니다.
제목을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세상에 돌도 없는
반짝이 신발**

**세상에 돌도 없는
반짝이 신발**

제인 고드윈 글 안나 워커 그림 신수진 옮김

초등
국어 교과서
2학년 1학기
수록 도서

‘세상에 둘도 없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림책 주인공에게
아주 소중한
반짝이 신발이
보이나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

제인 고드윈 글 안나 워커 그림 신수진 옮김

초등
국어 교과서
2학년 1학기
수록 도서

그림책 살펴보기

이야기를 읽기 전에
작가님이 남긴 글(헌사)을
같이 읽어봅시다.

“**안나, 우리가 서로를 찾아내서
정말 기뻐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책 속에서 **누가 만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봅시다.

글쓴이 제인 고드윈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났고 출판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안나 워커와 함께 작업한 책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 《빨간 버스》, 《오 늘은 쉬는 날》, 《처음 학교 가는 날》 등이 있습니다. 2020년 《안녕, 나의 보물들》로 호주어린이도서협의회(CBCA) 주목할 만한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그린이 안나 워커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고, 신문, 잡지, 카드, 앨범 등에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2008년 《산타의 호주식 휴일》로 호주어린이도서협의회(CBCA)에서 주는 에서 클라이트 상을 받았으며, 2016년 《안녕, 울적아》로 호주어린이도서협의회(CBCA) 최우수도서 상을, 2020년 《안녕, 나의 보물들》과 《내 친구 월터》로 호주어린이도서협의회(CBCA) 주목할 만한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옮긴이 신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뒤 오랫동안 출판사에서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꽃과 나무가 많은 동네가 좋아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책을 편집·번역하고, 지역 방송에서 좋은 책을 소개하며, 그림책 창작 교육과 전시 기획 일도 합니다. 옮긴 책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 《원 피스를 입은 아이》, 《안녕, 울적아》, 《난 꼬불꼬불 날 거야!》, ‘내 친구 스누피’ 시리즈, ‘나무 집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

안나, 우리가 서로를 찾아내서 정말 기뻐요. _JG

메그를 위해 _AW

Go Go a
Text Copyright © Jane Godwin, 2018
Illustrations © Anna Walker, 2018
First published by Penguin Random House Australia.
This Korean edition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Penguin Random House
Australia Pty Ltd through The ChoiceMaker Korea Co.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Kidari Publishing Co., 2018

-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초이스메이커코리아를 통해 저작권사의 독점 계약으로 키다리 출판사에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매하신 곳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반딧불이 신발

제인 고드윈 글 | 안나 워커 그림 | 신수진 옮김



시작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있네요.
고슴도치와 벌레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또 나오는지도
찾아보세요.**



그림책 자세히 읽기

“더러워질 텐데…….”
엄마는 걱정했습니다.



소풍을 가는 라라네 가족.
라라가 아빠 등에
업혀 있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라라처럼
아기는 보물이 있나요?

그림책 자세히 읽기

반짝이 신발이
빠져버렸네요!

어디에서 신발 끈이
풀렸을까요?

**앞장을 다시
자세히 봅시다.**



앗, 어떡하지?

그림책 자세히 읽기

모험을 즐기던
라라.

신발을 자세히 보세요.

신발 끈이 풀린
라라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응. 좋아. 가자!”
라라가 말했습니다.

모험은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책 자세히 읽기

반짝이 신발도
라라처럼 **모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반짝이 신발을 보고 있는
숲속 동물들에서
익숙한 친구가 있나요?



그림책 자세히 읽기

반짝이 신발도
라라처럼 **모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반짝이 신발을 보고 있는
숲속 동물들에서
익숙한 친구가 있나요?



그림책 자세히 읽기

반짝이 신발이 한 짝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꽃을 심어서 화분으로 쓰는 거야.”

윌터가 말했습니다.

“연필꽃이로 써도 되지 않을까?”

맥스가 물었어요.

“창가에 걸어 놔. 모빌처럼!”

핀이 말했어요.



음식을 먹는 모습만 봐도
오빠들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소시지만 썩 골라 먹은 사람,
완두콩을 다 쏟아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랑 비슷한 성격은 누구일까요?

내가 라라라면 어떤 오빠에게 신발을 찾아달라고 부탁할까요?

그림책 자세히 읽기



맥스

월터

라라

핀

그림책 자세히 읽기

반짝이 신발이 한 짝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꽃을 심어서 화분으로 쓰는 거야.”

윌터가 말했습니다.

“연필꽃이로 써도 되지 않을까?”

맥스가 물었어요.

“창가에 걸어 놔. 모빌처럼!”

핀이 말했어요.



라라는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왜일까요?

교과서에서
오빠가 해준 말을
찾아 연결해봅시다.

그림책 자세히 읽기

반짝이 신발이 한 짝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꽃을 심어서 화분으로 쓰는 거야.”

윌터가 말했습니다.

“연필꽃이로 써도 되지 않을까?”

맥스가 물었어요.

“창가에 걸어 놔. 모빌처럼!”

핀이 말했어요.



오빠가 해준 말은 라라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라라를
어떻게 돕고 싶나요?

한 짝 남은 신발이라도 라라에게는 너무나 소중한宝物입니다.

라라는 어찌 됐든 반짝이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발이 짹짹이야.”

애너벨이 흥을 보았습니다.



“난 괜찮은데.”

라라는 상관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림책 자세히 읽기

라라는 남은 신발과 다른 신발을 **짹짹**으로 신고 학교에 갑니다.

친구들 신발,
머리끈과 옷은
라라와 비슷해보이나요?

한 짝 남은 신발이라도 라라에게는 너무나 소중한宝物.

라라는 어찌 됐든 반짝이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발이 짹짹이야.”

애너벨이 흥을 보았습니다.



“난 괜찮은데.”

라라는 상관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림책 자세히 읽기

라라는
어떻게 입고 신었는지
자세히 보세요.

애너벨과 친구들
표정을 보고,
라라의 표정을 봅시다.

한 짝 남은 신발이라도 라라에게는 너무나 소중한宝物입니다.

라라는 어찌 됐든 반짝이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발이 짹짹이야.”

애너벨이 흥을 보았습니다.



“난 괜찮은데.”

라라는 상관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림책 자세히 읽기

라라는 어떤 기분일까요?
부끄러워 보이나요,
당당해 보이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책 자세히 읽기

새 친구 이름은 엘리였어요.

라라는 엘리에게 학교를 구석구석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운동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서관도, 식당도 보지 않았어요.

엘리는 라라의 신발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짹짹이라고 말하려는 걸까요?

엘리는 애너벨이랑 놀게 될까요?



전학생 엘리가 옵니다.
친구는 라라가 아닌
신발을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새 친구 이름은 엘리였어요.

라라는 엘리에게 학교를 구석구석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운동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서관도, 식당도 보지 않았어요.

엘리는 라라의 신발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작작이라고 말하려는 걸까요?

엘리는 애너벨이랑 놀게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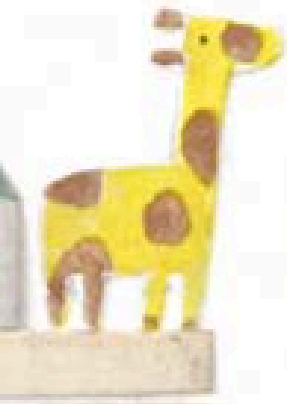


엘리네 집에서 라라가 본 것은.....

라라는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았어요.

전처럼 반짝거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그림책 자세히 읽기

라라는 엘리네 집에서
잃어버린 반짝이 신발을
다시 마주합니다.

세상에!
지금 라라는
어떤 기분일까요?
라라는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엘리와 라라는 침대 위에 신발을 나란히 놓았어요.

“내가 간직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돌려줄까?”

엘리가 물었습니다.



그림책 자세히 읽기

엘리가 “돌려줄까?” 물었어요.
라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어요.

**왜 바로 “응!”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두 친구 사이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오갈까요?**

엘리와 라라는 침대 위에 신발을 나란히 놓았어요.

“내가 간직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돌려줄까?”

엘리가 물었습니다.



그림책 자세히 읽기

여러분이
그림책 속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발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겠어요?**

신발을 돌려받을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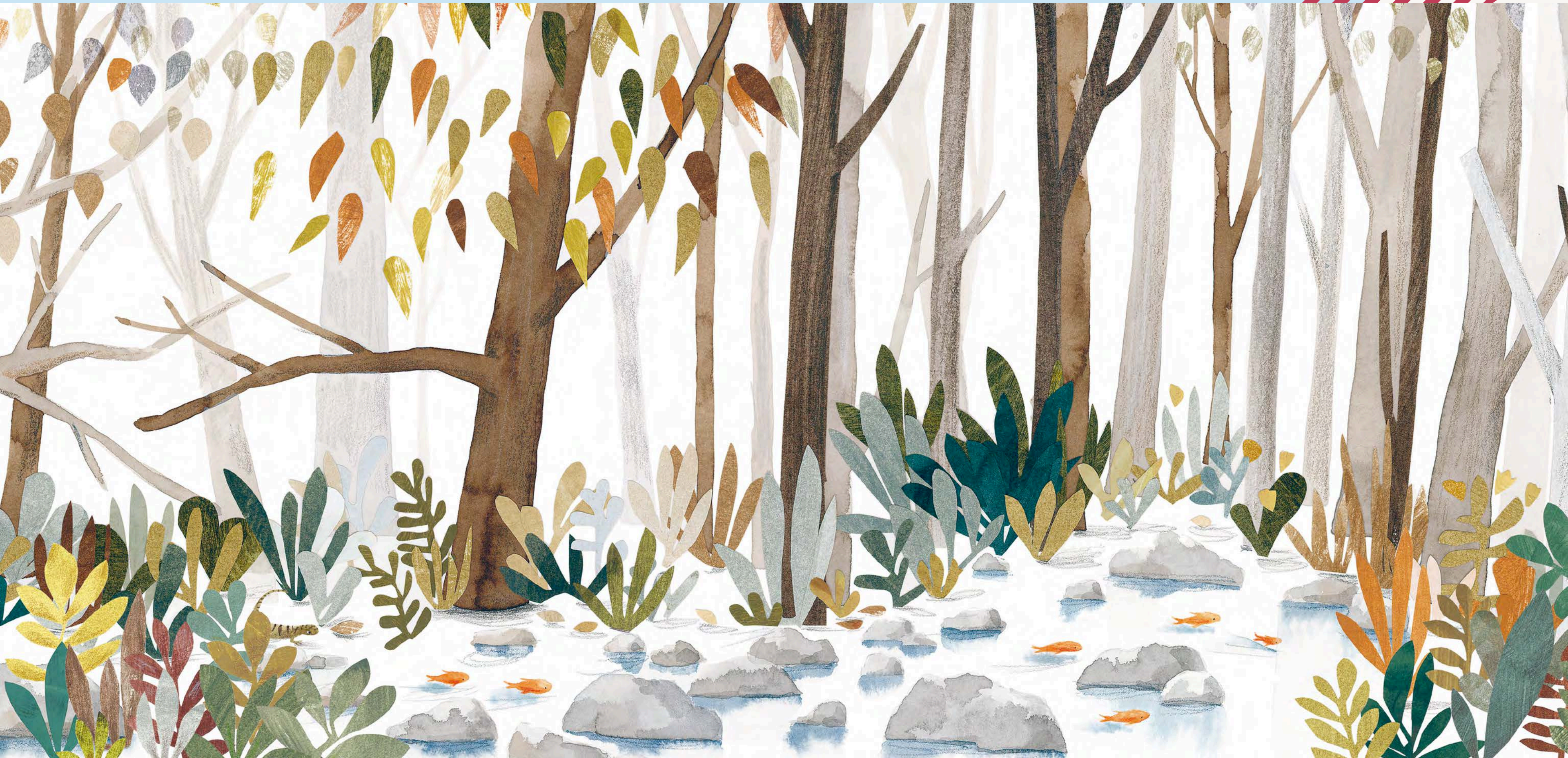
마지막 장면에서
라라와 엘리의 방법은 어땠어요?

내가 생각한 방법과 비슷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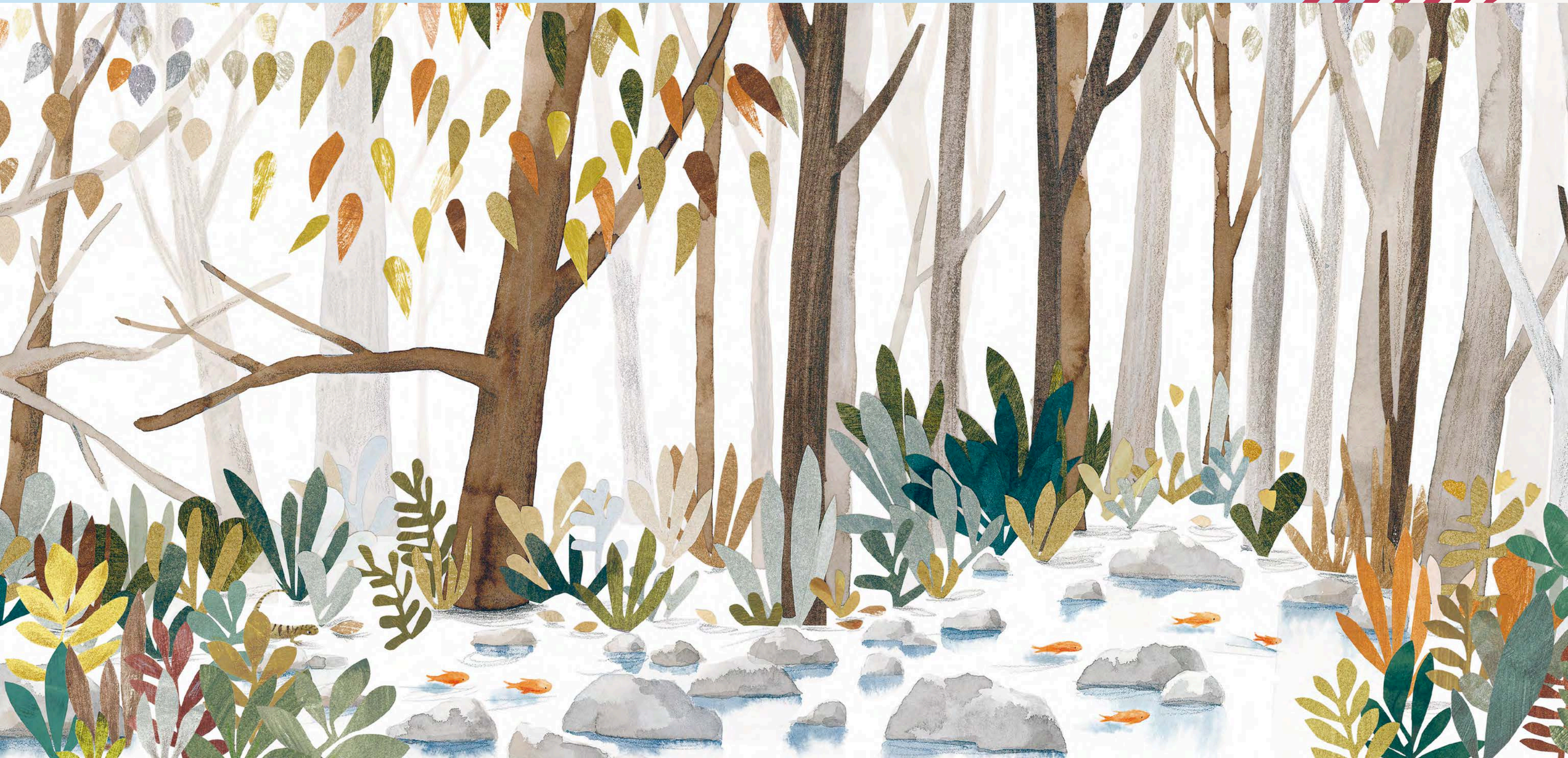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림책에서 딱딱한 표지와
부드러운 내용이 있는 종이를
이어주는 곳을
면지라고 해요.

앞면지를 봅시다. 여기는 어디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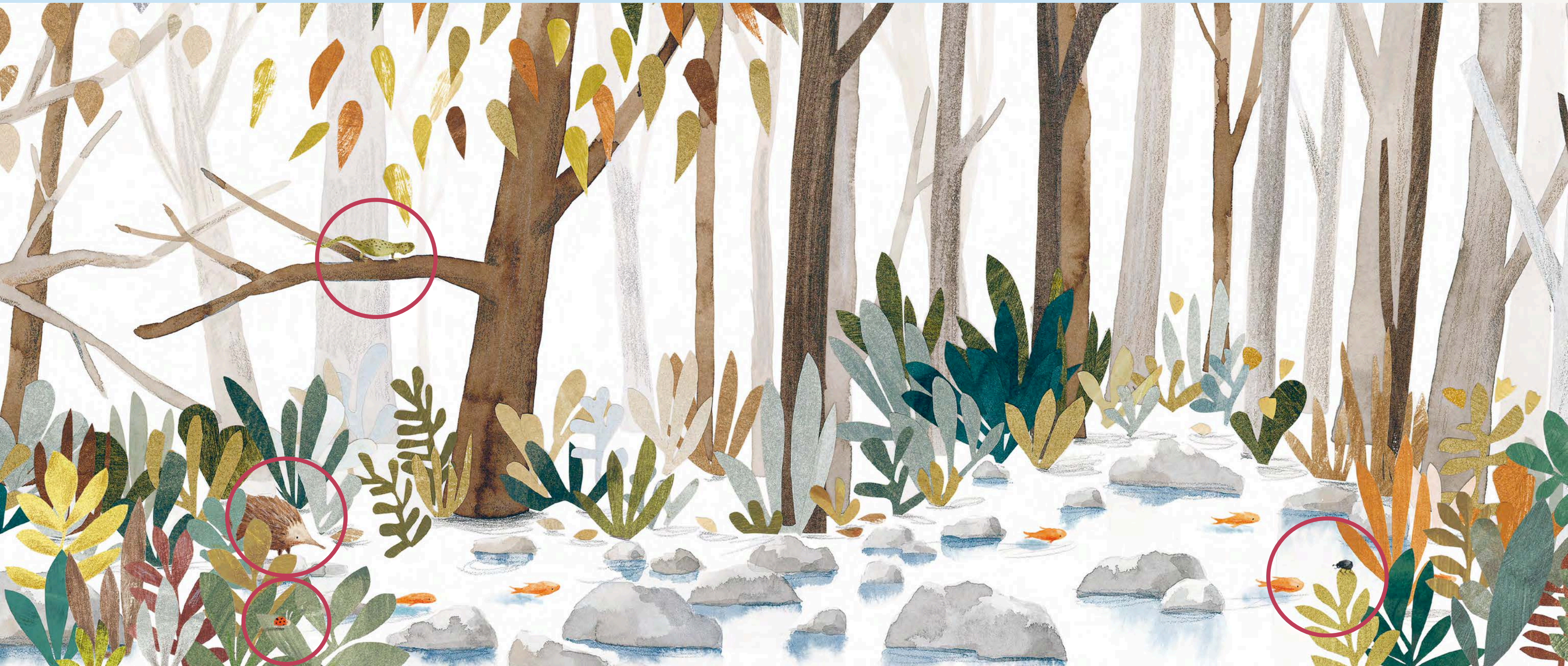
맞아요. **라라가 신발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그러면 뒷면지로 가볼까요?



아까 숲 속에 있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어요.
물건은 잃어버렸지만 친구들은 여기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반짝이 신발,
내 맘에 꼭 드는 반짝이 신발,
빛나는 반짝이 신발을 가진 기쁨도 잠시!

신발 한 짝이 강물에 떠내려갔어요.

신발이 한 짝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지만
절대 버릴 수 없는 나만의 보물!
씩씩하고 독립적인 아이들의 소중한 우정을 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제인 고드윈과 안나 워커의
아름답고 다정한 그림책.



내 이야기로 만들기

안 보이는 다른 친구들은
뒷표지를 보세요.

내가 아꼈던
보물이었지만,
덕분에 새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글쓴이 제인 고드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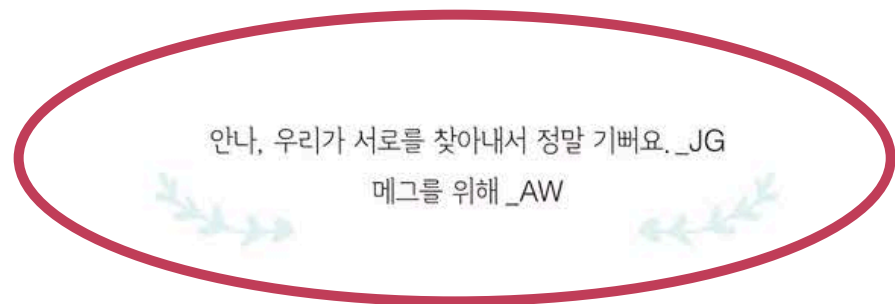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났고 출판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안나 워커와 함께 작업한 책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 《빨간 버스》, 《오늘은 쉬는 날》, 《처음 학교 가는 날》 등이 있습니다. 2020년 《안녕, 나의 보물들》로 호주어린이도서협의회(CBCA) 주목할 만한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그린이 안나 워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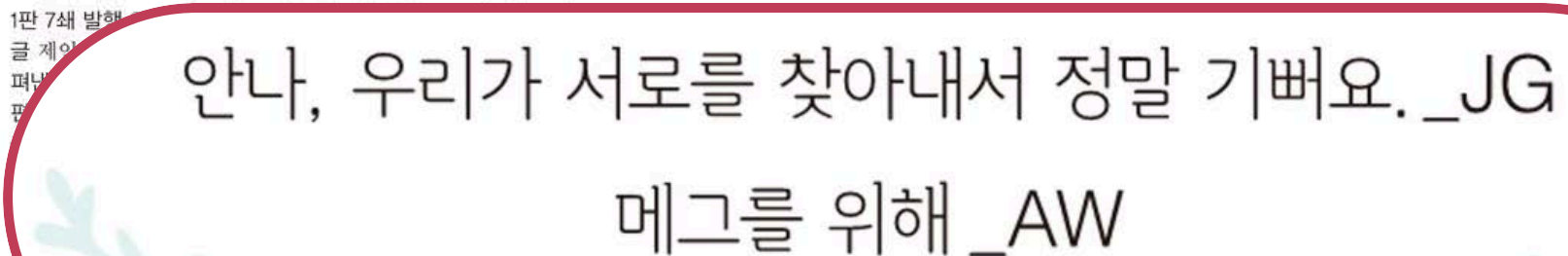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고, 신문, 잡지, 카드, 앨범 등에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2008년 《산타의 호주식 휴일》로 호주어린이도서협의회(CBCA)에서 주는 에서 클라이트 상을 받았으며, 2016년 《안녕, 울적아》로 호주어린이도서협의회(CBCA) 최우수도서 상을, 2020년 《안녕, 나의 보물들》과 《내 친구 월터》로 호주어린이도서협의회(CBCA) 주목할 만한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옮긴이 신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뒤 오랫동안 출판사에서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꽃과 나무가 많은 동네가 좋아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책을 편집·번역하고, 지역 방송에서 좋은 책을 소개하며, 그림책 창작 교육과 전시 기획 일도 합니다. 옮긴 책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 《원 피스를 입은 아이》, 《안녕, 울적아》, 《난 꼬불꼬불 날 거야》, '내 친구 스누피' 시리즈, '나무 집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



Go Go a...
Text Copyright © Jane Godwin, 2018
Illustrations © Anna Walker, 2018
First published by Penguin Random House Australia.
This Korean edition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Penguin Random House Australia Pty Ltd through The ChoiceMaker Korea Co.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Kidari Publishing Co., 2018

-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초이스메이커코리아를 통해 저작권사의 독점 계약으로 키다리 출판사에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매하신 곳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문래안 도서출판 키다리의 그림책 브랜드로 모래알처럼 한 알 한 알 반짝이는 그림책을 만들어 갑니다.

내 이야기로 만들기

처음에 작가님이 쓴 서로를 찾아내서 정말 기쁘다는 **헌사**(작가가 책을 쓰며 남긴 글) 기억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에서 누가 **서로를 찾았을까요?**

여러분도

소중한 보물이 있나요?

(교과서에 적어 보세요)

글을 쓰고 친구들과 나눠봅시다.

**라라와 엘리처럼
소중한 보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내 이야기로 만들기

아직 없어도 괜찮아요.

**올해 우리가 서로를
찾아낼 테니까요.**

친구를 사귀면서 꼭 기억할 약속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소중한 마음이나 물건을
함부로 대하게 두면 안 돼요.



라라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이 소중한 것 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보물이 있어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라라는 신발 한 짝이 없어도
기죽지 않았지요?

**내 마음은 언제, 어디에서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친한 친구가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랑 놀려면 이거 나한테 줘.”

말하는 친구에게

당당하게 거절하는 말을

같이 연습해볼까요?




단단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세 번 외쳐봅시다.

내 마음을 지키는 용기를 내요.

서로의 마음을 지켜줘요.



“싫어.
이건 내가 아끼는 거야.”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나를,**

**우리를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처럼 서로 아끼며 지내요.**